

송은범, 신무기로 4.1이닝 1실점…“이젠 감 잡았다”

핫플레이어

시범경기 두산전 슬러브·체인지업 위력 땀의 효과…“캠프서 하루 200개 투구”

한화 송은범 10일 시범경기 두산전 투구분석							
구종	1회	2회	3회	4회	5회	합계	최고구속 최저구속
직구	6	4	7	2	7	26	146km 140km
커브	1	1	3	3	2	10	123km 113km
슬라이더	4	1	3	3	0	11	137km 123km
체인지업	3	2	3	1	3	12	128km 119km
합계	14	8	16	9	12	59	146km 113km

“5회까지 던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화 김성근 감독은 10일 대전한화생명이 글스파크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시범경기’ 두산전이 끝난 뒤 선발 송은범의 투구에 대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날 송은범은 4.1이닝 동안 2안타 1볼넷 2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했다. 아직은 한 차례 등판일 뿐이기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올 시즌 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읽을 수 있는 말이다.

●안정적 피칭, 4.1이닝 2안타 1볼넷 1실점 역투

송은범은 3회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결과를 냈다. 1회 선두타자 정수빈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며 깔끔하게 출발한 뒤 2회까지 삼자범퇴로 처리했다. 1회 투구수 14개 중 변화구 8개, 2회 투구수 8개 중 변화구 4개, 평소보다 변화구 구사비율이 높았다. 3회 선두타자 박세혁과 이우성에게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했지만, 이후 5회 1사까지 무안타로 막아냈다.

역시 변화구 비율이 높았다. 변화구는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으로 구성됐다.

송은범은 경기 후 “날씨가 추워 볼이 되더라도 빨리 빨리 던져려고 했는데 그래서 좋았나”라며 웃었다. 이날 최고 구속은 146km. 쌀쌀

한 날씨와 현 시점에선 괜찮은 구속이다. 그러나 그는 “구속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며 올 시즌 신무기로 선보일 슬러브와 체인지업을 테스트했다고 밝혔다.

●‘니시구치 효과’ 신무기 슬러브와 체인지업

한화 전력분석팀 자료를 보면 커브 10개, 슬라이더 11개였다. 커브를 주무기로 삼아왔던 송은범은 “사실 커브는 1개만 던졌다. 나머지는 다 슬러브였다”며 “슬러브가 끝에서 빠르게 변화해 시즌 때 커브를 버리고 슬러브를 사용할지, 아니면 커브하고 함께 사용할지 고민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체인지업이었다. 그는 “1회에는 직구를 던질 때 체인지업을 던질 때 팔 스윙이 달랐는데, 2회부터 비슷해진 것 같았다”며 만족해 했다.

한화는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때(2월 23~3월 3일) 일본프로야구에서 21년(1995~2015년)간 활약하며 182승을 올린 니시구치 후미아를 인스트럭터로 영입했다. 송은범은 “슬러브와 체인지업 그립을 니시구치 인스트

럭터에게 배웠는데, 종전에 내가 던지던 그립과 달랐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마운드의 키플레이어

송은범은 지난해 FA(프리에이전트)로 4년 34억원의 조건에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지난해 33경기(선발 14경기)에 등판해 2승 9패 1홀드 4세이브, 방어율 7.04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결혼을 앞두고도 지난해 말 일본 고치 마무리훈련과 미야자키 교육리그까지 참가해 힘을 훑었다.

땀의 효과가 있었을까. 이날 터아웃에서 이재우는 송은범에게 “SK 때로 돌아간 것 같다”며 칭찬했다. 그러나 송은범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며 웃더니 “오키나와 캠프 때 하루 200개 이상 투구를 3~4차례 하고 마지막 귀국하는 날 피칭으로 확실한 감을 잡은 것 같다. 남은 시범경기에서 체인지업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직구를 던질 때와 팔 스윙이 같도록 신경을 더 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한화는 선발진이 미지수로 꼽히는 팀이다. 송은범의 부활은 올해 한화 마운드의 열쇠인데, 10일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대전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LG 토종에이스’ 우규민, 컨트롤 빛났다

■ 키맨

최고구속 139km…시범경기 NC전 3이닝 무실점



컨트롤로 3이닝 동안 1안타만 허용했을 뿐 불넷 없이 삼진 4개를 잡으며 리그 최강으로 전망되는 NC 타선을 잡아웠다. 직구 최고 구속은 139km로 빠르지 않았다.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포크볼을 섞어 던지며 왼벽한 컨트롤과 완급조절을 보여줬다.

우규민 같은 언더핸드투수는 일반적으로 좌타자에게 약하다. 그러나 이날 우규민은 좌타자 몸쪽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체인지업 등 컨트롤이 수반된 변화구로 역투를 거듭했다. 1회말과 2회말 나성범과 테임즈는 모두 삼진으로 잡았고, 이호준과 김종호도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3이닝 동안 유일한 출루 허용은 2회말 박석민에게 맞은 우전안타뿐이었다. LG 토종 에이스의 굳은 힘을 확인한 시범경기였다.

마산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박상희 회장 불명예 퇴진…아마추어야구 어디로?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으로 10개월만에 퇴진 KBA 조직 개편 불가피…아마야구 대회 차질



로 빠져들고 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7일까지는 KBA와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KBF)가 통합해야 하는데, KBA 조직을 정비하고 통합회장 후보를 추대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

KBA는 일단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놓고도 아마야구는 물밀에서 또 한 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KBA 정관상 선임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는 것이 순리지만, 선임인 김종업 부회장은 전임 이병석 회장이 물러난 뒤 직무대행을 수행하다 지난해 KBA 회장 선거에서 박 회장과 격돌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 계파간 간접의 꼴은 깊어졌다. KBA 수뇌부는 그래서 김은영 부회장에게 직무대행을 맡기는 작업을 진행할 듯하다. 또 비대위 구성, 통합회장 추천 과정에서 ‘자기 사람 심기’라는 계파간의 해묵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국 아마야구를 관장하는 KBA는 지금 재정이 고갈되고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아마야구 발전은 뒷전이고 자리와 권력에만 연연하는 어른들의 이전투구 난맥상으로 인해 한국야구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국 기자

■ 빅마우스

●칼바람이 불더라. (조종규 KBO 경기감독관. 수원 kt-네센전의 한파 취소 이유를 설명하며)

●좋겠다. (kt 조범현 감독. LG의 짧은 선수들이 성장했다는 말에)

●27세, 25세, 스물넷… (LG 양상문 감독. 훈련 중인 선수들의 나이를 정확히 기억하며 짧은 선수들

을 올해 잠실구장에서 많이 보고 싶다)

●토요일 울산입니다. 기대해주세요. (LG 류제국. 시범경기 첫 등판이 12일 울산 롯데전이라며)

●LA에서 인천까지 12시간 비행기 타고, 다시 인천에서 청원까지 버스로 4시간30분 왔어요. 그래서 더 뛰어야 해요. (NC 나성범. 전지훈련을 마치고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왔기 때문에 빠른 적응을 위해 더 많이 훈련한다며)

렛츠런파크

馬王의 금빛 레이스
최고의 영예를 바치다

당대 최강 명마들이 펼치는 거칠없는 질주,
터질 듯 심장을 뒤흔드는 레이스가 시작된다.
진정한 馬王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순간,
폭발적인 馬力은 극한의 스릴을 선사할 것이다.

Let's Run PARK SEOUL | 제7회 스포츠동아배경주 | 2016. 3. 13.(일) 제8경주

※ 과도한 마권구매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